전우원, 광주서 5·18 피해자에 사죄 의사 전달

"할아버지는 5·18 죄인이고 학살자"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군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1931~2021)의 손자 전우원(27)씨가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사를 전했다.

전씨는 "5·18은 다시 일어나선 안될 대학살이자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이라며 사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광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서 전씨의 사죄 메시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단체장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 유가족과 피해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였다.

특히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항쟁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3공수여단의 광주교도소 작전 당시 주변에서 총을 맞은 김태수씨, 구금돼 고초를 겪다 풀려나 부상 피해를 안고 살아온 김관씨 등 직접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검정 코트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전씨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들을 마주했다.

자리에 앉은 전씨는 마이크가 주어지자 3초간 머뭇거리더니 "추악한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살면서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백한다"며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라고 밝혔다.

5초 동안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군부독재까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픈 역사를 겪어왔다"며 "(이 과정에서) 전두환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시켰다"고 했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 ·18민주묘지 내 김경철 열사의 묘소를 찾아 자신의 옷으로 묘비를 닦으며 넋을 위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회 봉사활동이 참회 결정 계기 꼽아
진상조사위 참고인 조사 의향에도 "받겠다" 답변
'민주주의 아버지는 5 · 18 희생자' 방명록 작성도

아울러 "군부를 이겨내고자 용기로 맞선 광주 시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아픔을 깊게했다"며 "다시한번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5월 단체와 유가족들도 전씨의 사죄에 화답했다.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은 "할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주를 방문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씨의 뒤를 이어 다른 일가족들도 5·18 43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도 "전씨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 차분히 얽힌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자"고 했다.

이후 질의응답에 나선 전씨는 이번 사죄 행보의 직접적인 계기로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을 꼽았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현지에서 다니던 교회를 통해 5·18의 진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죄 행보에 대해서는 가족 중 유일하게 친모만이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족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오고 있지만 두려운 탓에 이를 받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다고도 했다.

회견을 마친 전씨는 5·18 유가족들에게 큰절을 하고 일부와는 포옹도 했다. 이후 5·18 유공자들의 명패가 전시된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설명을 들었다.

참배 일정을 위해 향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라고 썼다.

추념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그는 5·18 최초 희생자인 청각장애인 구둣공 김경철과 공식 사망자 중 가장 어린 '5월의 막내' 전재수의 묘소를 찾았다. 가묘 69기가 있는 행방불명자 묘소에서도 묵념했다. /뉴시스

'한표라도 더…'

전주을 후보자들 지지유세 '총력'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들이 총력전을 펼쳤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홈플러스 효자점 앞 거점유세를 시작으로 서신동 길공원 사거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그는 "꼭 당선돼 낙후한 전북과 전주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전주시민의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개혁 열망을 꽃 피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투표일인 5일 0시까지 강행군에 돌입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등에서 "이번 재선거는 무능·폭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저의 당선이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청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 하는 후보들은 전과 5범과 전과 2범"이라며 "후보로 등록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혹세무민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알려진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삼천동 전통시장 등을 돌며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날 논객 변희재 씨가 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끝으로,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효자동과 서신동 일대를 돌며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후보직 사퇴로 불법선거운동 책임져야"

임정엽 선대위, 강성희 후보에 "법정토론회서 한 약속 지켜라"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진보당 선거운동원의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한 강성희 후보는 후보직 사퇴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임정엽 후보 선대위는 "선거는 후보가 정책 공약과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엄숙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성희 후보쪽 선거운동원을 포함한 진보당원 두 명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만큼, 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진보당이 모자이크 사진에 대해 인물의 진위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한 치졸한 술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불법 타락선거의 본질을 흐려 전주시민을 두 번 속이려는 기만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 개혁진영의 분열로 빚어진 정당의 아픈 역사를 엉터리 탈당 횟수로 수치화한 허위사실을 강성희 후보가 TV토론에서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우려해 인내심을 가졌지만 강 후보는 뒤로 숨고 일개 당원까지 동원시켜 고소·고발전에 나서는 진보당의 민낯을 확인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당원을 동원한 허위 여론전도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대위는 위대하고 현명한 전주시민은 쌀 포대까지 살포하는 진보당의 매표행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외지인 수천 명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위장전입 등 또 다른 매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전주 학부모 120명, 임정엽 후보 지지 선언

'교육도시 어머니 마음' 소속

교육도시 전주를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 소속 120명의 학부모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전주를 반미 투쟁의 근거지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전주 재선거가 타지 출신 운동권 출신들의 선거 개입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하고 학부모들의 심정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양성 공약을 제시한 임정엽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들은 외지인 수천 명이 전주를 장악해 민심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쌀 포대를 살포하며 매표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말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방위조약 폐기 등에 우리의 자녀들이 동원되는 것을 원하지않는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건 임정엽 후보가 전주를 교육도시로 부흥시키고 청년 일자리 확대로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며 지지 사유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다시 시작하세요! 국가가 함께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납부재개 시 월 최대 45,000원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인 경우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천 원 지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재산세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자세히 알아보기